

제14회 전북청소년영화캠프 운영

도교육청, 도내 고등학생 25명 대상 청소년 영화제 출품 지원 · 문화예술 인력 양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6일~28일 김제에 위치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제14회 전북청소년영화캠프'를 통학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전북영상교육연구회에서 주관하고 도교육청이 주최하는 행사로, 영화제작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영화 사전체험을 통한 진로탐색 및 창작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디지털 멀티미디어시대에 문화산업을 이끌어 갈 전문 문화예술 인력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영화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북청소년영화제의 진행 스텝으로 우선 선출된다.

캠프 참가자는 영상 또는 방송관련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관련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캠프 활동에 참여할 학생 위주로 학교별 인원을 조절해 선발했다.

지난 26일 입소식과 오리엔테이션, 선택식 집중강의 '시나리오, 촬영, 영화연기, 편집'과 모둠별 시나리오가 진행됐으며, 27일은 모둠별 촬영, 28일은 모둠별 편집 및 작품 시사회와



전북도교육청은 26일~28일 김제에 위치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제14회 전북청소년영화캠프'를 통학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폐소식이 진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회성 체험 프로그램이 아닌 참여 학생들이 지평선청소년영화제 및 전북청소년영화제에 작품을 출품할 수 있도록 지원해 미래 지향적인 영상 전문가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캠프 기간 중 만들어진 영상물의 추후 관리 지도를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봉산 정재경 화백 '선운산기맥전'

내달 16일까지 고창문화의전당 전시실서 초대전 개최

고창군 출신 봉산 정재경 화백의 선운산기맥전(禪雲山脈展)이 (사)한국예총고창지회(회장 박종은) 주관으로 고창문화의전당 전시실에서 다음달 16일까지 열린다.

정 화백의 이번 전시는 '고창에서 백두까지 산과 바다에 펼쳐진 이산의 눈물'을 주제로 분단의 아픔을 딛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담하게 화폭에 담아냈다.

고창군 이산편 출신 정 화백은 남도 문인화

의 대가 금봉 박병보 선생으로부터 사사 받아 한국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을 담은 여러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정재경 화백은 "전시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길 바란다"며 "내 고향 고창군이 어머니의 약손이 되어 치유문화도시로 발돋움 하는데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문화재단, 신진예술가 지원사업 황지혜 현대무용 8월 1일 첫 공연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2021년 전주 신진예술가 지원사업 선정자인 황지혜의 무용공연 '무엇이 되고 싶다'를 오는 8월 1일 오후 3시 우진문화공간에서 선보인다.

'무엇이 되고 싶다'는 황지혜가 기획과 안무를 맡고, 무용수들도 직접 참여하는 현대무용 작품으로, 이번 전주 신진예술가 지원사업 8기의 작품 발표 시작을 알리는 첫 공연이기도 하다.

이번 작품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체된 문화예술계의 불안과 두려움을 동적인 에너지로 순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창작됐다.

공연을 앞둔 황지혜 무용가는 "코로나19로 인해 계획했던 일들을 다 하지 못하게 되면서, 스스로가 항상 강박에 쫓겨 살고 있는 것만 같았다"며 "이번 전주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하게 된 작품 '무엇이 되고 싶다'는 항상 무엇인가를 채워야 했던 지난날들에서 벗어나 진짜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고 말했다.

한편, 황지혜 무용가와 함께 선정된 신진예술가는 한국무용가 박지원,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 박경재, 시각예술작가 김승주, 뮤지컬 배우 김경은으로 총 5명인데, 올해 11월까지 전주 일대의 문화예술공간에서 작품 발표가 이어진다.

/장은성 기자

2021년 경력단절예방 8컷 만화 공모전

공모 목적 2021 경력단절예방 만화 공모전

공모 주제 ① 출산·육아 인식개선 조직문화 만들기
②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혁신적 실천방안
③ 일·가정 균형 문화 만들기

공모 기간 7. 26.(월) ~ 8. 27.(금)

출품규격 JPG 또는 PNG파일(해상도 300dpi) 이상
제출형식: B4 한 면(8컷)

응모자격 도민이면 누구나(개인, 팀 응모 가능)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제출 → 참가신청서, 파일 첨부)
※ 참가신청서: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 다운로드 (www.jwmc.or.kr)

문의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063)254-3715

결과발표 8. 31.(화) 14시

시상 내역		인 원	시상금
최우수상	1명	70만원	
우수상	1명	50만원	
장려상	2명	각 20만원	
특별상	10명	모바일상품권 각 1만원	

* 시상기준에 부합하는 출품작이 없을 경우 시상내역 변경될 수 있으며, 수상자는 9월 7일(금) 시상식에 참석하여야 함.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예방과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오는 8월 27일까지 지역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담은 만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경력단절예방 8컷 만화 공모전 개최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8월 27일까지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윤애 센터장)는 경력단절 예방과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오는 8월 27일까지 지역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담은 만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8컷 만화 공모전은 W-ink(윙크)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해 경력단절예방 ucc 공모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다.

공모주제는 ▲출산·육아 인식개선 조직문화 만들기 ▲일·가정 균형문화 만들기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혁신적 실천방안 등 순수 창작영상물도,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심사를 거쳐 총 14편의 작품을 선정(최우수상 1, 우수상 1, 장려상 2, 특별상 10)할 예정이며, 결과는 오는 8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또한, 수상자들은 센터에 전시 및 홈페이지 게재,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경력단절예방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위한 홍보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윤애 센터장은 "이번 '경력단절예방 만화 공모전'을 통해 미래의 세우고 성숙한 사회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와 동시에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을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063-254-3715)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순창군, 퓨전국악 '순창 10경 콘서트' 비대면 공연 전환

순창군이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관람객 안전을 위하여 29일에 있을 문화공연을 비대면 공연으로 전환한다.

군은 오는 29일 향토회관에서 열릴 예정인 '순창 10경 콘서트' 공연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방역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비대면 공연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 공연은 전북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문화포럼 나니레에서 선보이며, 국악과 클래식, 현대음악의 융합으로 순창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문화유적 및 설화를 바탕으로 하는 10가지 테마를 주제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소리꾼이 직접 해설을 맡아 다양한 세대의 관객들이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 공연 영상은 순창군 유튜브 채널인 '순창튜



순창군이 29일에 있을 문화공연을 비대면 공연으로 진행하며, 공연 영상은 순창군 유튜브 채널인 '순창튜브'를 통해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관람 가능하다.

브'를 통해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관람 가능하다.

공연 관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계(063-650-1625)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